

PA-21

전남지역 맥종별 파종시기에 따른 월동 후 생육정도

윤창용^{1*}, 최진경¹, 최진실¹, 김다미¹, 김선곤¹, 박병준¹¹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서론]

본 연구는 월동기간중 온난화에 따른 보리의 수량, 품질, 생장,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또한 최근 맥류 재배기간 중 기온상승과 강우량 증가, 저온 등의 이상기상이 자주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남, 경북, 충남 등 5개도의 맥류재배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맥종별(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파종시기에 따른 파종적기와 한계기를 재설정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맥종별 시험품종은 큰알보리1호(겉보리), 흰찰쌀(쌀보리), 호품(맥주보리), 새금강(밀)을 공시하여 답리작으로 파종량은 10a 당 16kg을 휴립광산파하였다. 각 맥종별로 파종기는 10월 상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순별로 7처리하여 월동 후 3월 중순에 생육 조사를 실시하였다. 생육조사로는 초장, 경수, 생체중, 건물중, 유수분화정도 등을 조사하였고, 유수장은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맥류의 출현소요일수는 파종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10월 중·하순에 파종한 시험구에서는 7~8일, 11월 상·중순에 파종한 시험구에서는 9~12일, 11월 하순에 파종한 시험구에서는 17일, 12월 상순에 파종한 시험구에서는 40일 이상으로 늦게 파종할수록 출현일수가 많이 소요되었다. 월동기인 12월 상순부터 2월 하순까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경과되어 출현기가 전년보다 빨라졌다. 월동 후 3월 중순경의 생육을 조사한 결과, 초장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파종한 시험구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12월 상순에서 12월 하순에 파종한 시험구간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경수와 생체중 건물중은 10월에 파종한 시험구가 11월 이후 파종한 시험구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유수분화는 전 맥종에서 11월 중순까지 파종한 시험구는 X기 이상이었으며, 12월 상순까지 파종한 시험구는 VIII기 전후였으며, 12월 중순에 파종한 시험구는 큰알보리1호(겉보리)는 VII, 흰찰쌀(쌀보리)과 호품(맥주보리)은 VIII, 새금강밀은 V기로 맥종간 유수분화 차이가 있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254705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Tel. 061-330-2531, E-mail. cyyoon2656@korea.kr